

전 세계, 미국 관세 폭탄 맞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촉발된 글로벌 무역전쟁 양상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마주보며 질주하는 기차와 같은 모습이다.

5일 '매일경제'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 폭탄에 맞대응해 유럽연합(EU)이 이르면 다음달 철강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로 수출길이 막힌 외국산 철강이 EU로 대거 들어올 조짐을 보이자 이를 차단하기 위해 무역장벽을 세운 것이다. 멕시코 캐나다 등은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대미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도 가열되고 있어 사실상 미국에 맞서 전 세계가 연합해 싸우는 형국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보복 조치가 EU 캐나다 멕시코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거지면서 보호무역주의 폭풍이 글로벌 경제를 강타할 것이라는 우려감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EU 제품에도 이달 1일부터 관세가 부과되기 시작했다. WTO 규정에 따르면 EU는 역내 철강산업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는 예비조사 결과가 나오면 최장 200일간 임시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다. 또 EU는 미국의 관세에 맞서 이달 20~21일부터 미국산 수입 제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멕시코는 EU 캐나다에 이어 3번째로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 멕시코 경제부는 4일 성명에서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는 WTO 규정을 어겼다."며 "WTO 체제하에서 분쟁 해결 절차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소 첫 단계인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 당사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최장 60일간 진행된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적절한 WTO 절차에 따라 채택되지 않았으며 WTO의 기반인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 합의(GATT)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점을 제소 근거로 제시했다. EU, 캐나다와 함께 지난 1월부터 미국의 철강 관세 영향권에 든 멕시코는 미국산 철강을 비롯해 돼지고기, 사과, 치즈 등 농축산물에 보복관세를 부과해 맞대응하기로 하고 5일 미국산 돼지고기에 20%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멕시코는 미국산 돼지고기 최대 수출시장이다. 따라서 멕시코 당국의 이 같은 위협은 이미 미국 내 돼지농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벌써 아이오와주 돼지 축산업자들은 5억6,000만 달러 규모의 손실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각국 지도자 간의 연쟁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등이 최근 전화로 관세 부과와 관련한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가 급랭했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의 EU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가 확정된 후 전화 통화를 했다. 한 소식통은 CNN에 "마크롱 대통령은 그들의 관계를 고려할 때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며 "통화는 끄적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도 4일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며 유사한 대화를 나눴다. 영국 총리실은 성명에서 "메이 총리가 EU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 뒤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미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해 국유기업을 통해 해외 생산기지를 인수하거나 직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를 우회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했다. WSJ는 "중국 당국은 국유 철강·알루미늄 업체들의 해외 생산기지 인수·투자를 장려해 왔다."며 "중국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등으로 해외 생산의 외연을 빠르게 넓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3차 무역협상에서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하지 않자 중국이 미국산 제품 구매 확대와 추가 수입을 거부했다고 홍콩명보가 5일 보도했다. 미국 대표단을 이끈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일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길에 올랐다.

래리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에 대해 통상 전략의 원칙을 모두 어긴 것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서머스 전 장관은 4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현저히 비전략적이고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분별한 통상 대립으로 인해 대부분 국가가 미국에 맞서 중국 편을 드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머스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은 미국인의 구매 가격을 높이고 미국 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며 미국의 정당성과 힘을 줄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천관우 변호사 그룹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취업 영주권 상담 / DACA 연장접수

-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담,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빅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